

# 물의 의미와空間的 解析

The Meaning of Water and its Interpretation in the Space

오영근\*/ OH, Young-Keun

## Abstract

Water is the origin of all things and has been standing as a symbol of eternity which neglects birth and death, or time and space. We mankind, however, confronts the water pollution or moreover the situation threatening even our existence as the results of considering it as mere consumables without any study on its original meaning or nature. Now, we should search for the way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water and to use it in the course of nature,

getting rid of the altitude of merely consuming it. Our traditional way of life is in harmony with the nature and water has been adopted in the space as the important element of the nature especially as per the theory of geomancy. Man can be inspired by the plasticity, motion, sound, and reflectivity of water adopted and harmonized in the space, and the concept such as water both of inner and outer space or hierachy of a microcosm is to be composed by the natural order which lines up a man - water - space.

키워드 : 물, 감성, 공간

## 1. 序論

### 1-1. 問題意識

지난 수십년 동안 近代化라는 미명아래 급격히 우리에게 밀어 닥친 西歐文化는 그 自體에 대한 根本的인 分析이나 理解없이 導入되면서 우리의 固有文化와 衝突, 對立하는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事物을 理解하고 表現하는 根本的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정한 理解없이 어떠한 本質에도 接近할 수 없는 認識을 갖게하고 있다.

더욱 現代建築의 多樣하고 多元的인 傾向의 흐름은 무엇이 本質인가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事物을 理性과 物質로서만 接近하는 西歐的 接近方法에서 탈피하여, 좀더 本質的이고 感性的인 方法으로 接近되어야 한다.

人間은 環境에 適應하며 살아간다. 環境에 適應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存在할 수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人間은 積極的으로 環境에 順應하며 適應하기 쉽도록 스스로 環境을 만들어 간다. 여기에서의 環境이란 自然的, 人工的 環境을 말하며, 특히 自然環境에 대한 人間과 生活空間과의 관계를 밝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人間은 自然속에 存在하며, 自然의 影響을 받고, 自然을 模倣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西洋과 東洋에서의 自然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西洋의 自然主義가 自然과 人間의 和음을 노래하되, 그것은 自와 他의 區別을 意識하는데 반하여, 東양의 自然主義는 나와 너의 구별 없이 人間과 自然의 合一에서 오는 기쁨을 노래하거나 또 그 合一을

기원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차이점에서 보듯이, 특히 우리에게서의 自然은 生命을 불어 넣어 주고, 事物의 存在와 成長을 위한 先行條件을 形成하면서 모든 것들과 連繫되어 우리의 生活을 支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生活에서 絶對的인 自然環境을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方法으로만 解決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科學 技術의 유토피아적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지금의 意識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한다.

本 研究는 自然에 대한 知識體系의 方法으로서 問題를 解決하기 보다는, 自然界의 秩序로서 傳統的인 自然觀을 살피고, 특히 原初性과 絶對性의 象徵인 물(WATER)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자 한다.

### 1-2. 分析方法設定

물은 人間에게서 무엇인가?

過去 물에 대한 物理的이고 水理的인 接近方法은 우리의 環境에서 물을 都市, 建築, 造景 등에서 단순한 要素로서 가치만을 부여했기 때문에 人間과 물이 調和되지 못하고 水質이 汚染되고 水邊의 環境이 파괴되어 오히려 人間에게 害을 미치는 要素로 전락되었으며, 生態界가 파괴되고 人類의 生存이 위태로운 狀況에 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人間과 물에 대한 根本的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分析方法을 設定하고자 한다.

첫째, 建築의 室內나 室外에서 물을 단순히 物理的인 方法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多樣化된 多元的時代에는 만족할 만한 結論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물을 空間과 時間의 理解위에 理性的인 道具로서만이 아니라 感性的인 論理로서 파악되고 接近되어야 하며,

\* 이사, 호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1)趙要翰, 藝術哲學, 經文社, 서울, 1994, p.286

이에 대한 適用方法이 研究되고 計劃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물의 原理를 파악하는 방법을 西歐의인 틀에서 만이 아니라, 東洋의 傳統의인 틀에서도 함께 생각되어야 진정한 原理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風水思想'을 東洋의 思想으로 設定하였다.

셋째, 물의 特徵을 파악한후, 실제 計劃되고 만들어진 作品을 對象으로 人間을 위해 知覺된 結果를 檢討하고 分析하는 과정을 따랐다. 이는 단순한 理論의 전개에서 끝날 수 있는 일화적이고 點狀적인 방법보다는 認識論의인 知識을 통해서 새로운 概念을 創出할 수 있다.

## 2. 물

### 2-1. 물의 本質

古代神話나 聖經에서 天地創造에 대해 언급된 것을 보면, 반드시 물에 대한 存在가 먼저 나오게 된다. 聖書의 創世記를 보면,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氣運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물 한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라고 쓰여져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보면 물이 빛보다 먼저 存在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에 대한 最初의 理論의 接近은 近代科學의 前兆가 생기기 직전 소위 鍊金術의 시대에 생각된 불, 물, 흙 및 바람의 4元素의 이론을 3개의 原質硫黃, 水銀, 소금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물이 液體인 것과 바람( 공기 )이 氣體인 것과 불의 성질로서의 硫黃을 이들에게 결부시켜, 남아 있는 소금을 제5의 원소로서 생각한 에테르에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약 2백50년 경에 카벤디슈(1784)가 空氣와 水素의 혼합물에 점화해서 물이 생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소2개 원자(H2), 산소1개 원자(O)의 화합물은 아보가드로(1776-1856)가 命名하였다.<sup>2)</sup>

人間이 처음 誕生할 때 母胎의 따뜻한 羊水속에서 길러져 나오게 된

다. 세상에 처음 나오자마자 깨끗한 물로 처음 목욕하고 그로부터 70년 사이에 대체로 56L의 물을 마시고 33%의 분뇨를 배출하며 12t의 땀을 흘리게 된다. 사람이 하루 평균 排泄하는 노폐물량은 약 30-40g이고 1g의 노폐물을 尿에 녹여서 排泄하는데 최소 15ml의 물이 필요하고 450-600ml의 수분이 사용된다. 그 밖에도 피부나 간, 요 등으로 100ml가 필요하여, 결국 1,250ml-1,400ml의 수분이 喪失된다. 물론 喪失된 水分은 보충해야 하며 人間 體內에서의 음식물이 연소해서 에너지로 될 때 하루 약 200l의 물이 만들어 지므로, 하루 人間이 섭취해야 할 수분은 최소 1,050-1,350ml가 된다. 體內의 水量이 2% 감소하면 물의 갈증을 느끼고 7%이상 감소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되며, 30%를 넘기면 生命이 위험하다.<sup>3)</sup> 이처럼 人間의 一生에서 물이 차지하는 役割은 誕生 以前에서 부터 죽음 이후 까지 自然과 함께 共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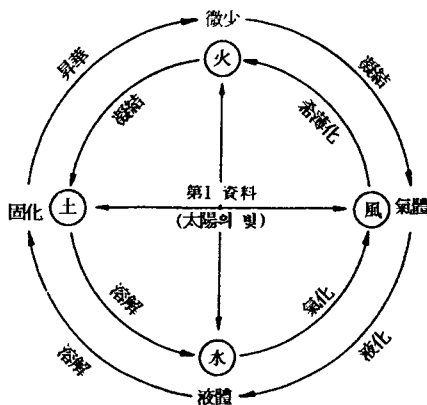
人間뿐 아니라 生物體가 生命과 그 恒常性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체내의 含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動物은 각 기관의 特徵에 따라 변이가 있으나 70-80%의 含水량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高等 動物은 체내 수분의 20%를 잃으면 사망한다. 動物의 몸에서 汗의 氣化熱은 體溫 調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人間은 다른 動物에 비해 20배 정도의 체내 調節능력을 갖고 있어서 물을 통해 身體를 유지하고 恒常性을 保存하게 된다.

人間의 身體와 물의 관계는 空間을 有機的으로 解析하게 하고, 室內空間에서는 物理的인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 生동감있는 感性的인 演出을 느끼게 하는 要因이 된다. 空間과 물의 관계에 대해 헬프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물은 우리 本性의 가장 깊숙히 자리잡은 先天的인 부분을 울리는 어떤 特性을 가지고 있다. 都市空間에서 물은 불, 나무, 그리고 하늘과 더불어 우리를 原初에 연결시키는 要素가 된다. 특히 물과 불은 가장 直感的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都市에서의 불은 위험하고, 否定的이고, 惡한 요소이나 물은 肯定的이고 生命力을 주는 요소다. 물의 自然性과 힘은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都市안에 安全하게 담겨져 있는 물이라도 마치 동물원 울 안에서 서성거리는 야생동물처럼 어떤 野性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물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과 시냇물을, 깊은 계곡과 굽이쳐 흐르는 강을, 그리고 自然의 조용한 音樂을 생각나게 한다. 물과 그 소리는 都市 안에서 人間 本性의 가장 原初的인 뿌리를 울리는 힘을 갖는다."

이처럼 물은 原初的인 힘으로 動的인 힘과 때로는 아주 靜的인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對應의 存在로서 表現된다.

또한 東洋(東洋)에서 傳統畫家들이 산수화나 풍경화를 그릴 때 自然과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물을 展望이 좋고 景觀이 좋은 곳으로 표현하여 집과 함께 感想하고 休息과 놀이를 즐기는 要素로 생각하였다. 東國輿地勝覽의 물을 소재로한 시를 보면<sup>4)</sup> 특히 우리 민족의 물에 대한 정서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鍊金術時代의 四元素 相互의 關係

2) 崔榮博, 물과 環境, 大韓建築學會誌, 제36卷 第2號, p.5

3) 崔榮博, Op. cit., p.10

4) 林忠伸, 물의 向天의 흐름, 大韓建築學會誌 第36卷, 1992, p.22에서 再引用.

5)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1993, p.480의 張寧의 詩에서 再引用.

“아득히 물 급히 흐르는데  
 저 멀리 돌층계 평평하네.  
 산새는 울다 다시 멈추고  
 강의 포구는 흐리다가 개는구나.  
 흥은 구름과 함께 가고  
 情有 풀과 같이 나는데  
 親을 못보니 다시금 神京을 생각한다……”

## 2-2. 風水地理에서의 물

우리나라에서 風水地理說은 三國時代에 전래된<sup>6)</sup> 이후 人間의 精神과 육체의 成長, 發展을 自然環境의 條件들과 연관시켜 人間生活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風水地理說의 空間概念은 기존 空間理論의 評價基準이 되어 새로운 調和를 유도하여 왔으며, 물을 가장 중요한 要素로 생각하였다.

風水의 法術은 得水가 으뜸이요 藏風이 그 다음이라고 하여 風水하는 방법으로 平洋의 地勢에서 得水의 땅이 제일이고 山龍인 경우의 藏風되는 땅이 그 다음<sup>7)</sup>이라 지적하였다.

물을 陰陽五行의 性格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天, 生水하여 五行에 있어서 최초로 물이 발생하여 萬物이 모두 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물은 元氣의 진액이며, 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山은 陰이며 물은 陽으로서, 相濟되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리하여 山은 人丁을 관리하고 물은 財를 관리하여 山과 水가 어울려야 비로소 調和를 이룬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山과 水는 陰과 陽의 성질로서 區別된다. 山의 형태에 따르는 그 영향의 解析이 다르듯이, 물에 있어서도 그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그 意味가 서로 分類된다.

이중환은 擇里志<sup>8)</sup>에서 ‘무릇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곳이 못된다. 山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비야호로 生成하는 묘함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지리에 합당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精氣를 모아 기르게 된다. 물은 財祿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澗水 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조수(朝水)라는 것은 물 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이나, 작은 시냇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큰 냇물이나 큰 강이 역으로 흘러드는 곳은 결코 좋지 못하다. 큰 물이 역으로 흘러드는 곳은, 집터나 묘터를 논할 것 없이 처음에는 비록 興旺하여도 오래 되면 敗亡하지 않는 것이 없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坐向과 陰陽 이치에 合致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물의 生成과 陽宅의 관계를 구체화 하고 있다.

風水地理說의 이론적 표현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地勢와 人間의 聚落과의 관계를 설명한 ‘人子順知’<sup>9)</sup>에서 물의 맛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嘉泉

가천이란 물맛이 달고 빛이 밝으며, 향기가 있는 것이다. 혼탁하게 하려 해도 안 되며, 四時에 물의 양이 똑같으며, 더울 때는 물이 차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니 吉美한 것이다. 이것을 眞應水라고도 하며, 大富貴地가 되고, 陽宅에 있어서 常飲하면 富壽하며 경사도 많다.

### 2) 冷漿川

이 물은 맛이 淡하며, 색이 渾하며 기는 비린내가 나는 것이니, 泥水泉이라고도 한다. 이 물은 灌溉도 못 하고, 양치나 세수도 못하고, 먹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니, 陰穴에서는 가장 흉한 것이다. 이는 龍氣가 위축되어 地脈이 疏漏함이니, 여름에는 넘치고 추동에는 마른다. 양택에서 이 물을 마시면, 가난함은 물론 長病, 廣腫, 단명한다.

### 3) 醜泉

이 물은 맛이 식혜와 같이 달다. 이는 성왕의 덕이 神物을 감동시켜서 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시어 장수케 되는 것이니 우연인 것이 아니다. ‘성인의 덕이 위로는 하늘에 미치고 아래로는 땅에 미칠 때 사람에게 농천수를 마시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이며, 이 물은 양택에 가하다.

### 4) 湯泉

탕천은 온천을 말한다. 일설에 의하면 ‘탕천은 유황이 물 밑에 있는 고로 물이 위로 올라오며 끓어서 더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 탕천은 용의 肝氣가 용화되어 천이 되고 沸熱되어 그기를 발산시키는 관계로 나타나는 까닭에 結穴이 안 된다고 한다.

### 5) 礪泉

광천이란 밑에 광이 흐르고 위에 천이 있어서 거슬러 나온 것을 말한다. 그 빛이 붉으므로 紅泉이라고 한다. 이곳은 대개 結穴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 6) 銅泉

동천이란 물빛이 쓸개액과 같으므로 膽泉이라고도 한다. 용맥의 肝氣가 샘이 되어 결작할 수 없는 것이다.

### 7) 湧泉

이것은 샘이 땅 속이나 암석 속에서 솟아나와 거품이 나기도 하고, 잠깐 일어나다 잠깐 그치니 조수가 白泡를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용천이 있으면 지기가 이 샘에 발설되어 명승지는 될지언정 穴은 안 되는 것으로 본다.

### 8) 賤泉

천천이란 구멍 속에서 쏘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것인데, 특수하게 冷烈하고, 이것은 음극의 甫殺氣가 발설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장 흉한 것이니, 이 근처에는 穴이 없다.

### 9) 沒泉

몰천이란 물이 아래로 스며나는 것을 말하니, 밑에 빈 구멍이 있어서 다른 곳과 연결되어 이곳에 고인 물이 샘을 이룬 것이다.

### 10) 黃泉

황천이란 땅 속의 스며드는 물을 말하며,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 오르고, 비가 그치면 물이 땅 속으로 금방 스며 없어지니 사시로 말라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밝아 보면 신발이 푹 들어간 자국을 남기며, 힘이 없는 흙으로 陰宅이나 陽宅도 되지 않는 곳이다.

6) 中國에서 戰國時代末期에 導入되었다는 說이 우세하다.

7)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8) 李重煥, 擇里志, 乙酉文化社, 1982, pp.164 · 165

9) 金東奎 譯, 人子順知, 佛敎出版社, 1982, p.836

11) 漏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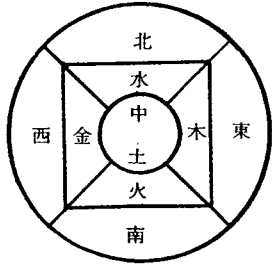
누천이란 물이 새어 정점이 떨어지는 것으로, 용기가 약하여 穴이 되지 않는 곳이다.

12) 冷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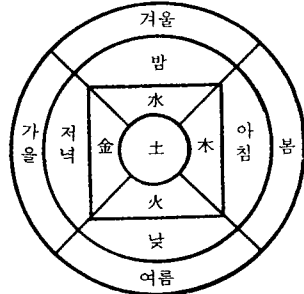
냉천이란 清流冷烈하니 극음지기를 받는 곳이다. 결코 음결의 조화가 없는 곳이다.

13) 龍秋泉

용추천이란 蚊龍을 잉육하는 굴로서, 날이 가을 때 이곳에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리는 감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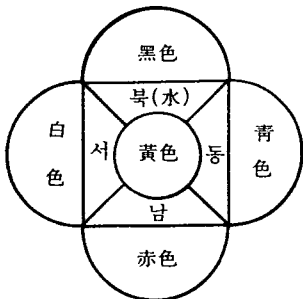
<그림2> 물과 五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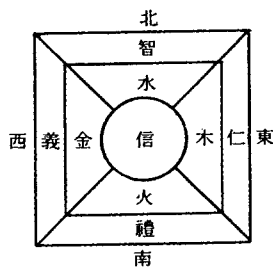
<그림3> 물과 시간

물이 宇宙와 人間の 生命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周易에서는 陰陽과 五行으로 물을 설명하고 있으며, 五行에 있어서 물은 下部 즉 수직으로 내려가는 성질의 氣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간이 살고 있는 方位에서의 물은 北쪽으로 표현되며, 그 의미는 물이 태양이 없는 夜間에는 氣가 차갑기 때문이다.

周易에서는 여러 氣를 數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sup>10)</sup> 물은 1과 6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1+5=6에 의하여 물 고유의 수1과 이수에 5를 더하여 6이 된다. 물이 모든 氣중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었기 때문에 1이라는 數를 갖게 되었으며, 두번째로 불이 생성되어 2의 數를, 세번째로 木, 네 번째로 金, 마지막 다섯 번로 土이 생성되었다. 물로부터 1,2,3,4,5의 수를 周易에서는 生數라고 하며, 각각의 數에 5를 더하여 6,7,8,9,10의 外形的 意味의 成數를 만들었다. 따라서 물은 生數1과 成數6을 갖고 있는 까닭에 물로 구성된 氣는1개라는



<그림4> 물과 五色



<그림5> 물과 五常

內在의 性質과 6이라는 外形을 갖게 된다. 물로 구성된 눈(雪)의 형태가 6각형으로 구성된 것과 물의 분자 H2O가 6각형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의 時間性을 보면, 하루에서 夜間의 氣를 나타내고 있으며 4계절 중에서는 태양의 힘이 가장 미약한 겨울을 象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形態와 色을 갖고 있는데, 물은 검은 색(黑色)을, 불은 붉은 색(赤色), 나무는 푸른 색(靑色), 쇠는 흰색(白色), 땅은 노란 색(黃色)을 의미하고 있다. 물이 검은 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태양이 없는 밤으로 黑色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물은 우리의 생활에서 끊임없이 生成하고 消滅하는 自然의 法則이며, 우리 民族은 이를 調和있게 理解하고 應用하는 獨창적인 생활을 만들어 왔다.

### 3. 물의 이미지

#### 3-1. 空間的 이미지

물의 이미지에 대한 接近은 물 自體의 性質과 그에 대한 이미지를 얻는 방법과, 다른 물체와 함께 어떻게 適用되고 表現되는가를 살피는 법, 空間에서의 물의 役割과 그 作用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는 법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으나, 本研究의 범위는 空間과 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주된 對象으로 한다.

원래 空間이란 人間の 實存의 기반의 이해 위에서 現象學과 더불어 설명될 수 있으며, 물과 空間은 場所의 개념으로 인간의 居住에 대한 표현으로 意味를 갖는다.

물은 空間的으로 變形性(plasticity), 流動性(motion), 音響性(sound), 投影性(reflectivity)의 고유한 性質<sup>11)</sup> 갖는데, 변형성은 물이 어떤 특정형태에 영향 받지 않고, 물을 담는 용기에 의해 그 形態가 결정된다. 따라서 물을 空間에 설계한다는 것은 용기를 설계한다는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물은 周易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는 生動感의 표현이며, 끊임 없는 움직임의 상징이다.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人間은 자연의 그리움을 느끼는 묘한 癡愁를 갖게 될 것이다. 폭포의 우렁찬 활력과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의 감동은 여러 가지로 인간의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음향성의 特徵이다.

물은 자신이 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주변의 것들을 거의 그대로 거울처럼 투영한다. 따라서 물은 그 전체 몸이 용기의 윤곽(edge)을 표현하지만 그 表面은 용기주위의 環境을 投影한다. 유동성은 靜的인 물과 動的인 물로의 區分이 가능하며, 靜的인 물은 '갇힌' 물을 의미하고 動的인 물은 '열린' 물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 물은 空間에서 결코 獨立的인 要素로 存在하지 않으며 항상 垂直的인 요소에 對應하여 存在한다. 특히 건축공간이 수직적인데 반하여, 水平的인 要素로 對應하여 存在한다.

自然空間에서 물은 흔히 山에 對應하여 存在하며.<sup>12)</sup> 山과 물은 空間的

10) 朴時翼, 周易에 의한 물의 상징성 분석, 大韓建築學會誌 第36卷, 1992, pp.32-35

11) 陳亮教, 물과 땅의 만남, 大韓建築學會誌 第36卷, 1992, p.88

12) 林忠伸, op.cit.p.23

水平性和 垂直性의 좌표축을 設定하고 또 그 限界를 設定한다고 볼 수 있다. 산과 물은 또한 각자의 物理的 속성에 있어서도 매우 對比의인데, 물의 無形性은 산의 有形性和 對比하며, 산의 不動性은 물의 流動性에 對比된다.

自然空間에서 산과 물이 대응함으로써 수평, 수직의 空間的 基準을 設定하듯이, 建築空間에서 물과 空間은 서로 대응하면서 基準을 設定한다. 물의 水平性이 건축공간의 垂直性和 結合되면 산수화의 물과 산처럼 아름다운 調和를 이룬다.

### 3-2. 兩面性: 안의 물과 밖의 물

물은 空間에서 內外的 兩面性을 갖고 있다. 생동감 있는 물은 흔히 공간의 안쪽에 있는 '안의 물'이며, 人間에게 아무런 意味를 주지 못하는 물은 '밖의 물'이다. 안의 물은 求心力이 있어 사람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 모으나, 밖의 물은 遠心力이 있어 시선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린다. 도심광장의 분수나, 집이나 마을의 우물, 집안의 연못은 안의 물이 되고, 큰강이나 호수는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는 밖의 물이다.

따라서 안의 물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동감 있는 삶의 행위가 이루어 지는 生成의 空間이되며, 밖의 물은 사람을 거부하며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消滅된 空間이 된다.

### 3-3. 小宇宙의 位階

우리는 空間의 形成이 宇宙의 形成 法則과 함께 이루어 왔고 이 秩序를 중요한 自然의 法則으로 믿어왔다. 따라서 空間의 形成은 물을 基礎面으로하여 위로 솟은 산을 따라 결국은 하늘에 다다른다.

물에서 시작하여 산을 거쳐 하늘로 이어지는 이 공간의 흐름이 建築空間에서도 母胎的을 이루어 물-建築-하늘의 小宇宙를 形成한다. 과거 자신의 기복을 기원하기 위해 장독대 위에 떠 놓은 작은 물그릇은, 의미론적인 것만 아니라, 물과 인간과 하늘로 이어지는 小宇宙의 작은 空間世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땅을 바탕으로 하늘로 솟아 있는 나무의 형상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天-地-人의 3神과 건축에서의 3階論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 4. 空間과 물

### 4-1. 室內空間에서의 물

1956년 붕괴된 C.I.A.M.<sup>13)</sup> 이후 近代建築의 거장들의 변신과 1960년대 초기의 잇따른 사망으로 多元的인 경향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一方的인 原理가 지배하던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開發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現代建築의 矛盾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위한 現狀이며, 전체보다는 부분을 중요시 하고, 固定보다는 變化를 따르고, 단려진 美學에서 열려진 美學을 지향하고, 組織보다는 個人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室內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建築과 區別되어 室內를 研究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13) 1928년 결성된 近代建築國際會議의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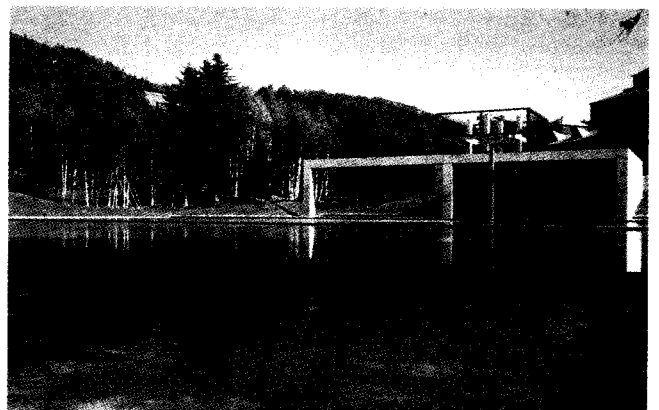
室內空間에서 물의 意味는 物理的인 濕度유지를 위한 환경조절 보다는, 人間의 마음을 움직이는 感性적 요소로서 透明, 流動, 感動 등의 요소로서 물의 個性을 나타내고 있다. 물의 이미지는 형성되는 물의 특징에 따라 相互 關聯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다, 벽, 천장으로 구성된 空間의 本質과 관련시켜 분류할 수 있다.

- 1) 溫度: 물이 갖는 色
- 2) 流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音樂
- 3) 水平面: 수직적 기둥과 벽에 對比
- 4) 水量과 깊이: 안전과 두려움
- 5) 透明性: 깨끗함과 맑음
- 6) 溶解: 구심적으로 주변 요소를 끌어 들임
- 7) 連續性: 시야의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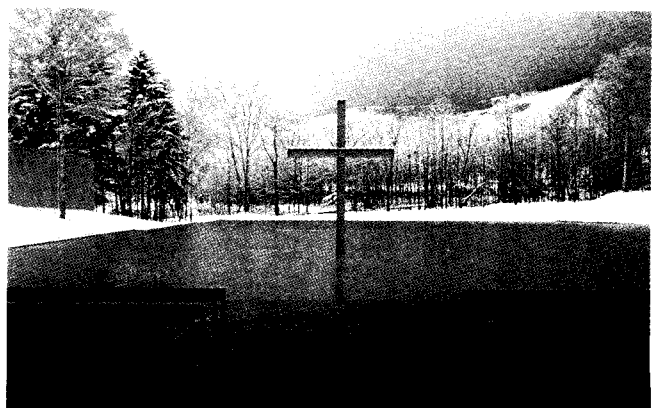
### 4-2. 事例分析

#### 1) 물의 教會(홋카이도, 日本, 다다오 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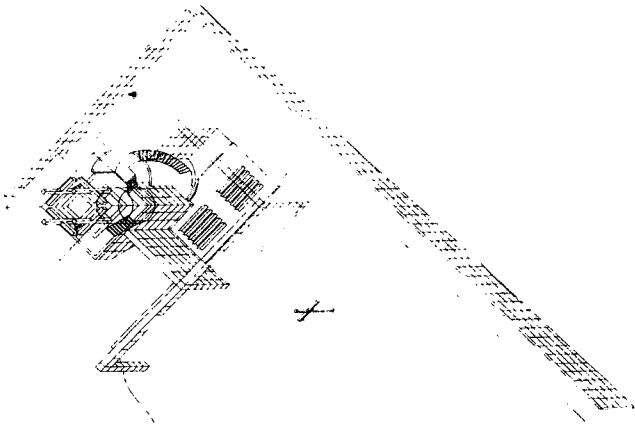
教會는 40-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教會 바닥은 수면에서 1개 층 높이 위에 있으며, 建築物은 인공호수의 一部에 걸쳐 있다. 물을 建築空間의 최우선의 主題로 활용하고 있으며, 內部空間에서 前面의 시야를 통해 밖의 물을 끌어드려 連續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 空間에서는 構造物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않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개념이 없는 合一적공간이 된다. 트여 있는 벽은 원래 대형 유리창으로 되어있고 여름에는 유리창을 완전히 옆으로 밀어내어 물과 자연을 실내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게된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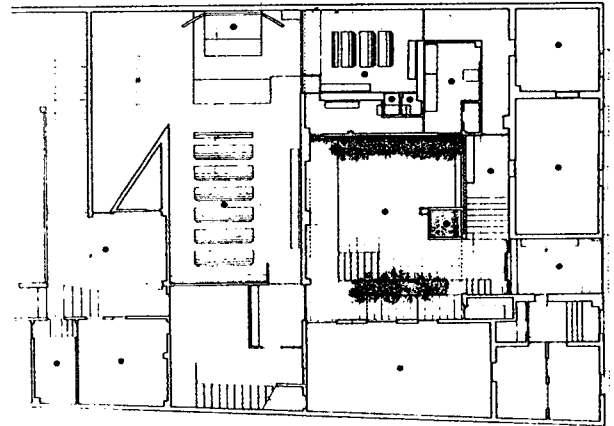
<사진1> 물의 교회 외관



<사진2> 물의 교회 내부



〈그림 6〉 엑소노메트릭



〈그림 7〉 카푸치나스교회 평면

인해 宗教的인 特性을 極大化할 수 있으며, 人間이 모든 걸치레를 벗어 버리고 自然 앞에 물을 통해 순수해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물소리는 들리지만 물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여간다. 벽을 지나 180도 反轉하면 눈앞에 水面이 展開된다.

이 作品은 물과 바람소리, 새울음 소리 등을 들으면서 自然과 交感하는 場이다. 시각만이 아니라 五感에 호소하는 空間인 것이다.

따라서 이 教會에서는 神의 수직적인 의미(십자가)가 물에 내려 앉자, 실내에서 보이는 물의 수평적 회상에 투영되어 다시 感性的 십자가가 人間의 깊숙한 마음으로 새겨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人間-물-하늘로 이어지는 小宇宙的 해석은 물의 空間的 이미지를 克明하게 나타내고 있다.

2) Chapel for the Capuchinas Sacramentarias(Tlalpan, Mexico, Luis Barragan)

教會建築은 特定文化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 태도, 신념, 열망의 總體的 表現이다. 教會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普遍性과 완벽하게 統合된 世界觀으로 특징지워진다. 즉 神과 俗世를 상징하는데, 神에

의해 창조된 완벽하게 秩序가 부여된 구조로서의 이 세상을 象徵한다.

이 작품은 속세의 문을 지나 문들어서는 순간 중앙에 펼쳐지는 중정 빛의 신성함이 建築的으로 빛과 물질과의 相互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정사각형의 모듈이 기준이된 건축의 구법은 室內空間의 表現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다. 성직자가 俗世에서 神聖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해 물은 '씻기움'으로서 노란색격자에서 떨어지는 빛과 함께 그 存在를 드러낸다.

또한 물위에 부유하는 꽃송이는 물속에 비쳐진 격자의 審美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宗教的 表現이다. 성직자는 室內로 들어서기 위해 오르는 계단을 통해서 비추지는 물의 모습에서 신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성스러운 空間의 禮式을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며 작은 격자의 사각형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신성함은 빛과 물의 調和를 極大化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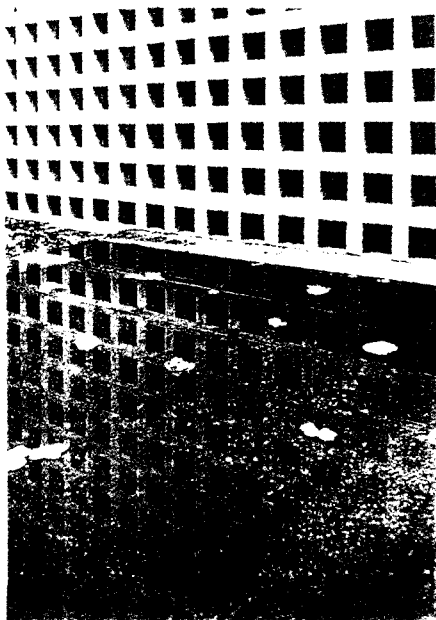
## 5. 結 論

물은 萬物의 根原이며 변함없이 탄생과 죽음,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는 永遠性을 象徵한다. 그러나 고유한 意味나 本質에 대한 研究없이 물을 消費의 가치로 치부한 人間은 水質汚染, 生態界破壞등 물의 피해로 오히려 生存의 威脅을 받고 있다.

과거, 우리민족은 人間의 精神과 肉體의 성장 발전을 自然現象의 法則에서 찾아, 이에 順應하고 調和되는 삶을 영위해왔다. 이러한 예로 통일신라시대에 유입된 風水地理說은 人間生活에 발전적이고 유익한 것과, 발전에 영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누어, 自然의 形態를 分析하였으며, 自然과 人間의 관계를 分析하여 空間構成의 理論을 수립하였다. 특히, 風水地理說에서 地勢의 性格을 구성하는 요인가운데 물을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물이 人間의 生命을 구성하는 가장 소중한 要素로 認識했기 때문이다.

人間과 물의 조화로운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의 構成原理와 물의 質을 판단하고 물의 作用과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 空間에서의 물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살피는 방법이 있으며, 물의 變形性, 流動性, 響應性, 投影性 이 그 特性이다.

물은 空間에서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求心力과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遠心力으로 空間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물과 人間과의 관계는 空間에



〈사진3〉 카푸치나스교회의 중앙물

서 물-인간-하늘로 이어지는 小宇宙의 位階를 나타내게 한다.

60년대 이후, 現代建築의 轉換期的 영향으로 多元化된 시대적 흐름은, 室內空間에 대한 認識이 과거처럼 建築空間의 한 構成要素로서 認識하기 보다는, 새로운 장르로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물과 室內空間의 관계도 자연질서의 관계로서, 물의 本質을 이용한 室內空間計劃의 可能性이 제시되고 있다.

훗카이도에 있는 '물의 敎會'에서는 自然앞에 물을 통한 인간의 순수성을 제시한 空間으로 感性表現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라간의 '카푸치나스교회'는 물의 심미적의미와 공간연출의 조화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물을 消費的 物質로 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人間과 自然의 秩序속에서 調和될수 있도록 물의 意味와 空間解析의 必要性을 갖게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建築, 大韓建築學會誌 第 36卷, 大韓建築學會, 1992.
2.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4.
3. 李重煥, 擇里志, 을유문화사, 1982.
4. 朴時翼, 風水地理와 現代建築, 1992.
5. 鈴木信宏, 유방현역, 水空間의 演出, 기문당, 1985.
6. 趙要翰, 藝術哲學, 경문사, 1994.
7. 長田泰公, 최희태역, 建築環境心理, 국제, 1991.
8. William J. Mitchell, 김경준의 역, 建築의 形態言語, 국제, 1993.
9. 안도다다오, 안도다다오의 건축, 계원조형예술대학, 1996.
10. Yutaka Saito, Luis Barragan, Noriega Editores, Mexico, 1994.

〈접수 : 1996. 11. 8〉